

+ 알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다면
"사랑' 이란 두 글자일 것입니다.
책이나, 영화나, 노래에서 사랑을 빼면 할 얘기가 있을까요?
그러나 정작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말은 넘치는데
사랑은 찾아 보기는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은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것은
막연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것 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은 하면서도
정작 행동이 수반되지 않아
실망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의 마지막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여야겠습니다.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겠습니다.
주님처럼 목숨을 내건 사랑은 못할지라도
남이 하기 싫은 궂은 일을 나도 하기는 싫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할 때
하찮은 것이라 생각되더라도
반복되는 꾸준한 사랑의 실천은
향긋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베플 대상이 필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일이 되시어
기쁘고 즐거운 나날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토마스

<http://home.comcast.net/~kimjiman/>

